

## 제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6학년8반 17번 이예린

먼저 러시아는 동유럽과 북아시아에 걸쳐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전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소련안에 편입된다. 이때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또한 소련안에 편입되는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소련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중앙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철저히 억압하기 시작한다. 즉 소련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응한 관계가 아닌 지배하에 두려고 했다. 심지어 소련의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수확물을無理하게 가져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엄청난 대기근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약 390만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된다. 이러한 소련의 차별적인 정책들로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는 소련이 우리에게 해준게 뭐가 있냐며 민족주의적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는 와중인 1991년, 영원 할거만 같았던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가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했어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쉽게 끊을수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완전히 붙어있는 만큼 이곳에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는 서부는 천서방, 동부는 친러시아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이 두 힘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옛소련 소속국들이 유럽 연합과 NATO에 가입하면서 대부분이 서방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NATO는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 만큼은 서방으로부터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것이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편입되면, 러시아 바로 앞에 서방군사 시설 및 병력 배치가 이루어 질수도 있기 때문에 푸틴은 NATO와 국경을 맞대게 되는 만큼은 양보할수 없다는 입장인거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땅은 척박한 러시아에 비해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흑토지대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양의 밀을 생산할수 있는 축복의 땅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와 함께 유럽진출의 관문 역할을 해주는 땅이다. 즉, 지정학적,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는 소련에게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서방국에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것이다.